

벤투 감독 “과정·결과 모두 잡겠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지 피력 2일 이라크와 1차전… 손흥민 등 유럽과 충돌동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시작을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잡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벤투 감독은 이라크와의 최종예선 1차전을 하루 앞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선수들을 믿고 있다”며 “최선의 경기력으로 결과를 만들 거로 믿는다”고 각오를 다졌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의 경기로 최종예선을 시작한다. 첫 상대인 이라크에 대해 벤투 감독은 “포백과 파이프백 등 다양한 전술을 가능하다. 최근엔 감독도 바뀌어 새 사령탑 체제 첫 경기에서 빌드업 등 다른 경기 스타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는 세컨드 볼을 따낼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수비도 강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우리고 우리 스타일대로 경기하며, 높은 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06 독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라크는 유럽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며 한국전에 대비했다.

이와 관련해 벤투 감독은 “상대에게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어떤 컨디션으로 경기에 들어갈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가 처한 조건에 맞게 최적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팀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침대 축구’ 대응과 관련해서도 “전에 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에게는 우리의 플레이로, 올바른 자세로 임하라고만 주문한다”면서 “내일도 다른 경기도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객관적 전력이나 상대 전적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간판스타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전력의 핵심인 유럽파 선수들이 경기 이를 전인 지난달 31일 합류해 손발이 맞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건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다.

벤투 감독은 “오늘 처음 모든 선수

가 참가한 가운데 훈련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거기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면서 “소집된 선수들 모두 경기할 만한 좋은 컨디션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라크전에 나설 선수는 내일 오전 훈련 이후 출전할 선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습뉴스

프로야구 흔드는 예비역 병장들

탄약병·경비병·GOP 근무 등 자진 현역 입대·제대 후 활약



군 제대 후 활약하는 한화 김태연. 연합뉴스

과거 프로야구 선수들은 현역 입대를 선수 생활의 마침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짙었다.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상무 혹은 경찰야구단(현재 해체) 입대 시험에서 떨어지면 기량이 떨어지고 프로 무대에서 도태된다고 여겼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선수들은 기를 쓰고 병역 의무 해결에 매달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역 복무에 관한 프로야구계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오히려 현역 입대를 자진하는 선수도 많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폭 줄어든 데다 여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병역 분위기, 경찰야구단 해체로 인한 줄어든 대체 복무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맞물리면서다.

일반병으로 제대한 뒤 프로에 복귀해 활약하는 선수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새 로운 4번 타자 김태연(24)이다.

2016년 한화에 입단한 김태연은 2019년 상무에 지원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는 제1사단에서 전자 탄약병으로 복무했고 지난 5월 만기 전역했다.

두 달 가량 적응의 시간을 보낸 김태연은 8월 한 달간 14경기에서 타율 0.420(50타수 21안타), 1홈런, 11타점

을 기록하며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김태연은 규정타석을 채운 KBO리그 타자 중 8월 타율 전체 1위를 기록했다.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 손주영(23)도 김태연과 같은 제1사단 출신

이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야구 대신 마을가집을 다시 잡겠다고 자진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2018년 12월 제1사단 경비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 손주영은 군대에서 웨이트트레이닝 등 기초 훈련에 집중했고, 제대 후 달라진 모습으로 LG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꿰찼다.

그는 지난달 29일 키움 히어로즈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피안타 2볼넷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데뷔 5년 만에 첫 승을 올렸다.

이 밖에도 올 시즌 KBO리그에서 두각을 보이는 예비역 선수들은 많다.

kt wiz 외야수 김태훈(25)은 비무장지대 일반전초(GOP) 철책을 지키는 강원도 고성 울곡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그는 2019년 6월 군 생활 중 발목 인대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의병 제대했고, 야구장으로 복귀했다.

예비역 선수들은 군 생활이 선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장애인 사격 대표팀의 박진호(44·정주시청)는 1일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혼성 10m 공기소총 복사(SH1) 결선에서 253.0점을 쏘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사격 ‘銀’… 0.1점에 갈린 승부

도쿄 패럴림픽 공기 소총 박진호 동 이어 메달 추가

단 0.1점 차로 메달 색깔이 결정됐다. 대한민국 장애인 사격 대표팀의 박진호(44·정주시청)는 1일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혼성 10m 공기소총 복사(SH1) 결선에서 253.0점을 쏘아 나타샤 힐트르프(29·독일·253.1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힐트르프와 박진호의 점수 차는 단 0.1점. 이 근소한 차이로 메달의 주인 공이 결정됐다.

지난달 30일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깜짝 동메달을 딴 박진호는 은메달을 추가하며 도쿄 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동메달 획득 후 “메달 색을 바꿔보겠다”던 약속을 재빠르게 지켰다.

그는 이날 예선에서 47명 중 1위를 기록하며 기본 줄기 결승에 올랐다. 총 60발을 쏘는 예선에서 638.9점을 쏘

고 패럴림픽 예선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좋은 흐름은 결선에도 이어졌다. 박

진호는 첫 10발에서 106.3점을 쏘며 선두에 0.1점 차 뒤진 2위에 올랐다.

결선은 11번째 총알부터 2발씩씩 쏘

총점이 가장 낮은 선수가 탈락하는 ‘서든 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진호는 11, 12번째 총알을 합쳐 21.0점을 쏘며 선두로 올라섰다.

경기 막판에는 잠시 위기가 찾아왔다. 19번째 총알을 10.1점에 쏘며 2위

로 내려앉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10.5점을 쏘며 1위로 올라섰다.

박진호는 21번째 총알을 최고점(10.9점)에 가까운 10.8점에 맞추며

기선을 제압했다. 힐트르프는 10.6점, 슈체트니크는 10.4점이었었다. 그런데 박

진호의 22번째 총알이 9.6점을 맞췄다. 기회를 잡은 힐트르프는 10.6점을 쏘며 총점 231.7점으로 박진호

(231.6점)에 0.1점 차로 앞서 나갔고, 남은 두 발에서도 이 근소한 차이의 리드를 지키며 패럴림픽신기록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박진호는 3일 50m 소총 3자세, 5일 50m 소총 복사에서 추가 메달 획득을 노린다. 연합뉴스

제주 중·고 유도부 금1·동5 획득

2021 용인대총장기전국대회

제주 중·고등학교 유도부 선수들이 2021 용인대총장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 유도대회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광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3개, 고등부 경기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그리고 1일 밝혔다.

중등부에서는 이현지(제주서중·2사

진)가 여중부 +70kg급에서 금메달을, 고호영(제주제일중 3, 남중부 -81kg)과 양민준(제주중앙중 3, 남중부 -51



kg), 김재환(제주서중 2, 남중부 -73kg)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등부는 김민주(제주중앙고 3, 여고부 -48kg)와 강민지(남녕고 2, 여고부 -70kg)가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오는 10월 31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listing TV programs and their start times for September 2nd, 2021. Includes sub-tables for 제주 CBS FM and KCTV.

오늘의 운세 2일. 운세 전문가 김홍상 지단(해시)의 36개 운세 분석. 각 운세(36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에 대한 해석과 조언을 제공함.